

자의사 결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사업계획수립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민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성 분석과 합리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작성된 설계도서·타당성 분석자료, 재정지원규모, 협상의 주요요소와 협약의 기본 룰 등 관련정보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운영기간 중의 자금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민자사업의 특성은 대부분의 영업수입을 사용료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수입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환차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운영자금 부족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흑자 도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협약을 통해 운영수입 부족을 재정지원하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금부족시점과 재정지원 시점간의 시차로 인해 자금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별로 적립계정을 개설하여 그러한 일시적 자금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로 하여금 Stand-by LC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공을 위한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민자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역할의 범위도 매우 넓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서부터 특정 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사업계획 내용의 심사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를 감독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운영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투자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6. 끝내며

인프라시설은 국가라는 신체의 혈관에 해당한다. 인프라시설의 원활한 공급 없이 경제발전과 사회후생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모든 인프라투자는 정부 위주,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공급자들도 제도의 보호막 아래서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불필요한 낭비나 비효율도 발생했다. 인프라부문도 개혁이 필요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한다면 아마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가치창조를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